

6일은 남원 예가람길에서 함께해요

매일 첫째주 토요일 '문화예술 페스티벌' 개최

남원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와 저변 확대를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에서 오는 6일(매일 첫째주 토) '문화예술 festival'이 개최된다.

이 행사는 과거 예가람길 운영위원회의 주도적인 행사였지만 최근 상가 및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판매자 모집, 장터 구성, 공연 기획, 토론회 등을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이다.

매일 첫째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문화예술 축제는 예술시장, 골목마켓, 길거리 공연, 케일라 버스킹 공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특히 골목마켓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신청 접수 후 판매 볼륨에 대한 증빙물품 방식 및 위생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한 매회 행사가 끝나는 시점에 참여자들이 토론을 통해 행사를 직접 되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함께 생각해

는 자리도 마련 중이다.

예술시장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모집 중에 있으며 남원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마켓, 공연 등 참여 희망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예가람길 버스킹 공연단이 이번 8월 행사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시장에 참여하여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사막하고 한산했던 구도심이 매주 작품 전시, 장터 운영, 젊은 버스킹 무대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로 "문화예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예가람길"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상인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다양한 소규모 공연문화가 자리 잡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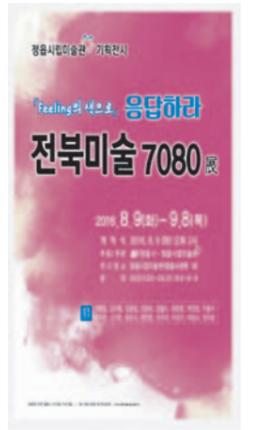


남원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이 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응답하라 전북미술 7080' 정읍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지난 70년~80년대 전북지역에서 창작의 열정을 불태웠던 작가들의 우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정읍시립미술관이 기획전시회로 마련한 '응답하라 전북 미술 7080...feeling의 색으로'가 그 자리다.



지난해 전북도 내 시 단위 공영(시립)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개관한 이후 벌써 세 번째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이어진다. 개막식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정읍시립미술관 뮤지엄 교육실에서 열린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회에서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도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전북대표 작가 16명의 우수작품을 만날 수 있다.

참여 작가는 권병렬, 김해두, 김문철, 김정숙, 김철수, 류창희, 박민평, 박종수, 선기현, 소기호, 송민규, 양만호, 오우석, 우상기, 이창규, 장지성 작가 등이다.

김성기 시장은 "정읍지역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아쉽게 마련한 기획전시이다"며 "사랑하는 이들과 전시회장을 찾아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수준높은 그림도 감상하는 소중한 시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회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립미술관(☎063. 530-64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독립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 공모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전북독립영화제가 올 11월에 열릴 영화제를 앞두고 출품작을 공모한다.

전국의 모든 독립영화에 열려있는 '국내 경쟁' 부문과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거나 전북에서 활동하는 영화인이 제작한 작품에 열려있는 '온고을 경쟁' 부문으로 나눠 출품을 받는다.

작품 공모는 19일까지 진행되며, 2015년 8월 이후 완성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영화의 길이, 내용, 형식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독립영화 출품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전북독립영화제 홈페이지(www.jifa.or.kr)

에서 출품신청서 작성 후 사무국으로 우편발송하거나 이메일(jifa indie@har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내역은 전체 경쟁 부문에서 한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차기제작지원금 300만원을, 본선 진출작 중 국내 경쟁과 온고을 경쟁에서 각각 한 편의 우수상을 선정하여 차기제작지원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지역 관객들에게 다양한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적박한 지역 영상문화 환경을 개척해 오고 있는 전북독립영화제는 11월 3일~7일 열린다. 문의 281-3176.

/정해은 기자



'해와 달이 있는 달 항아리'

도립미술관서 유승욱 개인전

유승욱의 '해와 달이 있는 달 항아리' 개인전이 오는 8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달 항아리를 주제로, 전통적인 소재들을 밝은 색깔과 단순한 비정형형태로 표현한다. 또한 세부묘사 및 명암을 최소화하고 나이프를 사용하여 마티에르(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작품은 거친 질감과 숨 가쁘게 펼쳐지는 빠른 터치로 인해 어두운 그늘 속에서 잠재해 있다가 어느 순간 밝은 빛을 반짝이며 현재와 내세를 오고가는 윤회의 굴레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유발한다.

작가의 이러한 표현 기법은 소박하지만 가볍지 않고, 거칠지만 담담한 편안함을 포괄하며 한국적 정서

를 은은하게 투영한다. 이와 함께 해와 달, 호랑이, 매화 등의 민화 소재들은 한국적 서정성을 담은 생명감을 창출한다.

작품은 역사성, 사회성, 자연성 거기에 인간적인 긍정적 통찰과 시각이 결집되어있어서 현실적인 삶과 초현실적 삶의 세계를 동화시킨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표현주의적 어법으로 형태자체보다는 그 형태 속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정신적 의미에 비중을 두었다.

유승욱은 전주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10번째 개인전이다. 작가는 250여회의 기획 초대전 및 단체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상형전, 모양과 모양, 색깔로 만난 사람들,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이별 상실 때문에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을까

'매력적인 심장 여행' 출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보다 부지런할 수도, 강력할 수도 없다. 매일 8500리터의 혈액을 펌프질해 15만km에 달하는 혈관 곳곳에 공급해주는 근육질의 모터. 80년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약 30억 번을 뛰는 강철의 마라토너. 불과 손바닥만한 크기의 심장이 담당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심장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한다. 생명 중추인 심장은 피부나 장처럼 위상이나 문제를 알리는 신호를 그 즉시 보내지 않고, 심각한 손상을 입은 후에야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심장에 무관심해진다. 안타깝게도 심장은 다른 기관과 달리 재생이 힘들다.

세포가 재빨리 재생되는 간이나 그보다 한참 느린 폐와 재생력을 겨루면 심장은 거의 독보적인 꼴이다.

평생 동안 심장세포는 채 절반도 바뀌지 않는다. 한 마디로, 큰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우며, 예방만이 최선인 까다로운 기관이다. 게다가 심장 및 심혈관 질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20~30대 청년 돌연사의 대부분이 심혈관 질환에서 비롯된다.

'매력적인 심장 여행'을 쓴 요하네스 폰 보르스텔은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심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돌보기 위해 '심장 전도사'를 저술했다.

보르스텔은 심장학학을 전공한 독일의 촉망받는 신에 의학도로서, 사이언스 슬램(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를 대중 앞에서 10분간 자유롭게 발표하는 과학대회) 독일 대표로 활동한 바 있는 인기 과학강연자다. 또 응급상황에 투입되어 긴급치료를 돕는 응급구조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군산 '썸페스티벌'에 주말 2300여 명 다녀가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마련한 야외공연 '썸페스티벌'이 시민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며 한여름 밤을 시원하게 수놓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썸페스티벌은 총 4회로 진행되며, 지난달 29일에는 지역출신 국악인들과 함께 비나리, 민요, 판굿 등으로 신명난 한판을 선보였다.

30일에는 마술, 마인, 버블쇼 등 관람객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로 2,3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 오는 5일 열리는 3번째 페스티벌은 영화·드라마 OST와 월드디즈니 음악 등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브라스밴드 선율을 선보인다.

6일에는 청소년예술제에서 우수한 실력을 뽐낸 방송댄스 팀과 벨리댄스, B-boy팀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페스티벌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군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은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arts.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4일>

<p>▷ 쥐띠 46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0년생: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 84년생: 금전운은 좋아지나 타인과의 관계에는 좋지 못한 운이다.</p>	<p>▷ 소띠 49년생: 타인의 일에 나서지는 마라. 61년생: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어.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세워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운이다. 85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좋은 운이다.</p>	<p>▷ 호랑이띠 50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정식으로 추진하라. 6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4년생: 지나친 욕심은 재산을 불리으나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라. 86년생: 어려워도 도와줄 사람이 생기는 운.</p>	<p>▷ 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시비가 따르는 운. 63년생: 정신적으로 뚜렷하고 믿지 않으면 중요한 사항이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타인의 조언을 구하라. 75년생: 물과 마음을 겸허히 하고 인정시켜야. 87년생: 다른 사람과의 시비구설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p>
<p>▷ 용띠 5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76년생: 사소한 일에 신경이 곤두서는 운. 88년생: 천천히 전진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p>	<p>▷ 뱀띠 53년생: 한사람의 편을 들면 상황이 악화되니 주의하라. 65년생: 손재주가 따르니 먼저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 77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지나 큰 소원은 이루어지지 어려워니 욕심은 버려라.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다.</p>	<p>▷ 말띠 54년생: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신경 써라. 66년생: 식욕이 있는 운이니 모일이나 식사약속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8년생: 매사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다. 90년생: 뒷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p>	<p>▷ 양띠 5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운. 67년생: 타인과 어울리기 보다는 고즈넉함을 즐기는 것이 좋겠다. 79년생: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 운이다. 91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p>
<p>▷ 원숭이띠 56년생: 인덕이 따르니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68년생: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80년생: 지나친 의욕은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니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라. 92년생: 자신의 목표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말라.</p>	<p>▷ 닭띠 57년생: 다른 사람과 얽히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손해가 따르니 투지나 투기는 불리한 운이다. 81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니 말과 행동을 분명하게 하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 93년생: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 운.</p>	<p>▷ 개띠 46년생: 태양이 밝게 비추니 의기양양한 운이다. 58년생: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 될 수 있는 운. 70년생: 인덕이 따르고 식욕이 들어오니 모일이나 식사약속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8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p>	<p>▷ 돼지띠 47년생: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독단행동을 삼가라. 59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투지나 투기는 삼가고 체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운이다. 71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83년생: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립은 피하라.</p>